

“전남 자체 브랜드 강화해 고향사랑기부 늘려야”

도,정부·지자체 등과 워크숍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연계 강화
답례품 차별화 등 활성화 모색
출향민 맞춤형 콘텐츠 마케팅
외부 확산형 전략 마련도 제안

전남도가 고향사랑기부를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시·군 간 경쟁보다는 전남도 자체 브랜드를 강화해야 한다는 외부 분석이 나왔다. 또 전남만의 차별화된 답례품을 개발하고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와의 연계 강화 필요성도 언급됐다.

지난 20일 전남도가 행정안전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2개 시·군과 함께 목포에서 개최한 고향사랑 활성화 위한 워크숍에서 전문가들의 이 같은 조언이 나왔다.

전남도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가 고향사랑기부제로 모금한 총액 879억원 중 21%인 187억원을 모금해 전국 1위에 올랐다. 전남도는 고향사랑기부제와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성과분석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워크숍을 마련했다.

특히 김홍주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김원신 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 고두갑 목포대 교수의 토론 시간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김홍주 연구위원은 “전남은 개별 시·군 간 경쟁보다 ‘전남도 전체 브랜드 강화’ 전략이 유효한 지역”이라며 “따라서 내부의 차별화 전략도 중요하지만 외부 확산형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은 그럼에도 “전남도 내 차별화된 성과 제고



최근 목포에서 열린 고향사랑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에 참석한 전남도청 관계자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를 위해서는 시·군별 스토리텔링 강화, 차별화된 답례품 개발, 출향민 맞춤형 콘텐츠 마케팅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전남도 사랑에 서포터즈를 통한 기부 활성화 방안들이 제안됐다. 사랑에 서포터즈는 관계 인구 확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전남도민 외에 타 지역민이 가입할 수 있는데, 서포터즈가 되면 관광지와 숙박, 음식점 등 연계된 가맹점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 사랑에 서포터즈의 기부율은 18.8%로 비교적 낮았다.

고두갑 교수는 “자자체의 모금 활동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민간 내추럴 파트너(서포터즈)를 조직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원신 부연구위원은 “서포터즈와의 연계 전략으로 제안한 마일리지 제도도 실효성 있는 기부 전환까지 이어지려면 심리적 제도적 장벽을 낮추는 기술적 설계가 필요하며 플랫폼 내에서 즉시 기부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특히 “서포터즈 가입자의 이용 가능한

할인가맹점이 전남 내 일부 지역 및 업종에 편중돼 있는 참여 구조라. 지역 간 격차 심화라는 역효과를 낼 수 있어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할인가맹점의 업종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여행 목적 및 주요 숙박지 기준 서포터즈 방문객의 이동경로에 따른 연계 관광루트 및 지역 맞춤형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홍주 연구위원도 “서포터즈 활동이 기부, 답례품 체험 및 공유, 홍보, 신규 기부 유도도 이어지는 선순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참여와 기부가 지속가능하고 반복되는 구조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태어난 지역이나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준다. 기부 상한액은 작년까지 개인당 최대 500만원이었지만 올해 2000만원으로 올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도 ‘찾아가는 일자리희망버스’ 눈길

여수유월드 루지테마파크 면접·채용 ‘원스톱’ 지원

전남지역 구직자와 기업을 직접 연결하는 전남도의 ‘찾아가는 일자리희망버스’ 사업이 구직자들에게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여수유월드 루지테마파크에서 열린 ‘일자리희망버스’에는 22명을 채용하려는 여수유월드의 채용 계획이 알려지면서 21명의 구직자가 참여해 관심이 쏠렸다.

전남일자리종합센터 주관으로 열린 ‘찾아가는 일자리희망버스’는 구직자에게 현장 체험부터 면접, 채용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기업에는 맞춤형 인재를 연결해 실질적인 채용 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여수유월드는 루지·놀이공원·실내키즈파크·테

디베어 뮤지엄 등을 갖춘 여수의 대표 관광명소로, 회사측은 놀이기구 진행요원·점표원·조리원 등 19명에 더해 6월부터 새롭게 도입하는 롤글라이더(플라잉짚롤러코스터) 진행요원 3명 등 22명을 뽑기 위해 희망버스에 채용계획을 올렸다.

여수유월드의 성별·나이 무관 채용 방침에 청년부터 신중년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한 가운데 면접이 이뤄졌다.

여수유월드 관계자는 “고용 창출 뿐 아니라 여수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지역 할인이나 현장 할인 행사 등 혜택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서울서 전남 새청무 쌀 소비촉진 행사

전남도는 27일 프랜차이즈 ‘얹샘김밥’ 영등포역점에서 전남 새청무쌀 소비촉진 프로모션 이벤트를 열었다. <사진>

전남도는 이날 행사에서 얹샘김밥 손님들을 대상으로 새청무쌀 인증 현판식을 갖고 영암 달마지쌀 500g을 증정했다. 얹샘김밥은 국내 260개, 해외

10개 가맹점을 두고 있으며 영암군과 ‘농특산물 판매촉진 협약’을 통해 새청무쌀 50 t을 매월 공급받고 있다.

얹샘김밥이 선택한 새청무쌀은 전남도가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한 품종으로 전남 재배면적의 63%를 점유한 대표 품종이다.

어선원 직불금 신청 접수도, 7월 31일까지

전남도는 27일 “오는 7월 31일까지 2025년 어선원 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어선원 직불금은 연간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해 어업활동을 한 내국인 어선원에게 연 13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전남지역 모든 승선 어선원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전년도 기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다. 가족어선원 또는 어선의 소유자가 아니어야 하며,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개인 2000만원 미만, 세대 합산 4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동일 세대 내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또 신청연도에 수산 분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소규모어가 직불금과 농업, 임업, 산림 분야 기반직불금 중 하나를 지급받은 경우 중복 수령이 제한된다.

직불금 신청은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가족이나 어선 소유자를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직불금은 12월께 지급된다. /김민석 기자 mskim@

전남농업기술원, 먹기 편한 양파즙 출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27일 ‘기능성 표시제 양파즙’ <사진>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양파는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대표적 기능성 채소다. 그러나 하지만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운맛과 향으로 인해 제품 다양화에 한계가 있다. 시중에 유통 중인 양파즙의 90% 이상이 단일 형태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수요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쓴맛을 효과적으로 줄인 새로운 양파즙 제조기술을 기반으로 기능성 양파즙 제품을 출시했다.

신제품은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는 한방 재료를 함께 배합해 맛의 균형을 살렸다. 또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기능성 원료인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을 활용해 혈중 중성지방 개선에 도움을 줄 과학적 기능성도 확보했다.

특히 제품은 기능성 표시 식품 표시·광고 자율심의 절차를 모두 완료해 기능성 문구 표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해당 기술은 무안의 양파즙 전문 생산업체인 ‘육반식품 영농조합법인’에 기술 이전됐다. 법인



공식 누리집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기능성 양파즙 개발은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사례”라며 “양파 생산 농가와 가공업체 모두의 소득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격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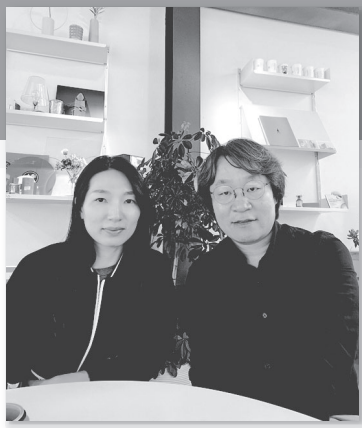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